

# 꿈을 키우는 학교

## - 교육정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정보화실장 한태명

**교** 육인적자원부는 1996년에 수립한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라 1단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초로 전국 1만여 개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학내전산망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으며, 1만 3천여개의 컴퓨터실습실이 설치가 완료되었다. 아울러, 22만 2천여개의 일반교실에 PC를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기기가 보급되었고, 34만 전 교원에게 PC가 보급되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된 것의 의미는 지식정보시대에 학생과 교사를 잇고, 학교와 가정을 잇고, 학교와 정부를 잇고, 이를 전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사회의 중요한 터전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이용하여 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데, 연간 7조원이 사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고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고 있는가 하면 교육 문제로 이민을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고 있다. 지나친 국민의 교육열도 문제지만 교육정책도 학생들을 치열한 학력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공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 실체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학교가 시대적 변화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일방적인 지식 공급과 지나친 학력 경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 개발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무한히 생산되는 지식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무한히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교원들의 사명감을 복돋우는데 국민적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여 물리적인 공간내에서의 한계성을 갖는 현행 교육의 형태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정착시켜

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교육 체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교육 콘텐츠가 확보되고 사이버 교육 인프라가 고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익방송사나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 인프라인 『에듀넷』을 공교육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토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철학과 목적, 방법을 재정립하고 지식기반시대에 걸 맞는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수년동안 교육개혁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확고 부동한 교육 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밝고 희망찬 교육의 미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에서 탈피하여, 교원에게는 최고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신명

나는 직장』으로, 학생에게는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을 마음  
껏 기를 수 있는 『꿈을 키우는 학교』로, 국민 모두에게는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모이고 분배되는 『평생학습  
의 배움터』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